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유 제 호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 설립 배경

호남사회연구회는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했다.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군사독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교수사회는 아직도 침체와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민중과의 교동을 차단당한 암울한 현실에 처해 침묵과 냉소로 일관하는 것이 교수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였다. 돌이켜 볼 때 교

대학과 지역사회연구모임

1. 지방화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실상과 과제 : 대구사회연구소
2.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 성과와 전망
3. 4·3연구소
4. 전남사회연구회
5. 영남노동운동연구소
6. 충북지역연구회
7. 경기지역사회연구소
8. 경남사회연구소

수사회의 이같은 무기력한 순응주의는 군사독재에 대한 소극적인 협력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던 1985년 무렵 전북 대학교의 몇몇 교수들이 물밑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억지스럽게 유지되는 독재정권의 그늘에서 침묵과 냉소는 곧 협력과 동조라는 자각과 비판을 공유하는 비교적 젊은 층의 교수들이었다. 그 모임에서 점진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바로 교수사회 내부의 민주화운동, 그 구심점으로서의 연구회 설립, 그리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이었다.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직교수 모임을 비롯한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작은 모임들이 형성되어 향후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교두보가 되었다.

1986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숨바꼭질하듯 명맥을 유지해 온 민주화운동이 전국 규모와 대중 수준으로 발전한 해였다. 광주민중항쟁의 전말을 비롯하여 집권세력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저지른 만행과 탄압이 뒤늦게나마 —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나마 — 여론화 되어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수들도 정권 퇴진과 조속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80년의 지식인 134명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의 서명운동이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계의 민주화운동이 상승 효과를 거둠으로써 1987. 6. 10일을 전후하여 전국 규모의 시민항쟁이 발발했고, 마침내 집권세력이 이에 굴복하여 이른바 6·29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1986년 당시 전북지역에서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터져나왔으며 이것이 앞서 말한 작은 모임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전북지역 서명교수들간에 조직적이고도 장기적인 민

주화운동 구심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7년 6·10 시민항쟁에 뒤이어 때마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전북지역의 다수 교수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계기로 서명교수들간에 더욱 확고한 연대의 틀이 짜여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서명교수들간에 구체화된 합의 내용이 바로 지역학술운동 성격의 연구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일부 젊은 교수들의 모임이 얼마 전부터 이미 기금 조성에 들어가 있던 터라 연구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1987. 8월에 전북지역 교수들 50여 명을 회원으로 '호남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으며, 1994. 12월 현재 창립 당시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제8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설립 취지

호남사회연구회의 설립 취지는 크게 보아 지역성, 학제

성, 진보성으로 압축된다. 중앙집권화된 사회체제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지역사회 고유의 제반 문제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즘과 전문성을 빌미로 정착된 학문풍토는 대학과 사회를 철저히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반성과 더불어 호남사회연구회는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와 실천적인 수준에서의 대안 제시라는 목표 아래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역성'을 표방하게 되었다.

학문분야별 폐쇄 현상 또한 호남사회연구회가 극복해야 할 주된 문제였다. 사실 기존 학제상의 전공별 미분화는 유사분야 연구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마저 차단하는가 하면 사회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무관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같은 인식과 더불어 호남사회연구회는 '학제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과활동, 월례발표회, 공개토론회 등등 회원들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간의 학문적 교류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사회 특유의 편향된 이

데올로기 또한 호남사회연구회 창립 당시 회원들이 주목한 학문적 폐단이었다. 군사독재에 의해 장기화된 치밀한 사상통제와 미국 위주의 대외정책이 사회 각 부문에 무비판적 미국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교수사회마저 사상적 불구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에 관련하여 호남사회연구회는 '진보성'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교수사회에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여 교수사회에서 우선 이데올로기적 균형이 확보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초석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한편, 호남사회연구회는 방금 말한 학제성과 진보성을 좀더 앞서 언급한 지역성에 통합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제성과 진보성을 추구하여 학문적 차원에서도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적 독자성을 확보하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관되는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 기구 및 운영

1994. 12월 현재 호남사회연구회는 정회원 75명, 준회원 15명, 특별회원 20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정회원은 주로 전북지역 대학교수들, 준회원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이수자와 수료자,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조하는 후원자들이다.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5인(연구, 기획, 총무, 섭외,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집행부 임원이외에 분과장 5인(지역사회분과, 사회사상분과, 역사분과, 문학분과, 철학분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욱 폭넓은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8기 회장단은 김의수 교수(회장, 전북대 철학과), 김종인 교수(부회장, 원광대 보건행정학과), 김영호 교수(부회장, 전주우석대 신문방송학과)가 맡고 있다.

예산은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단, 제6기(1992. 9~1993. 8)부터 시작된 학술지 『호남사회

연구』 발간을 위해서는 비용 일부를 특별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활동 내용

호남사회연구회의 사업은 분과활동, 월례발표회, 학술대회, 공개토론회, 문화행사, 수련회,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연대활동, 학술지 발간 등등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와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발의,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협력체제를 유지해 온 것도 호남사회연구회가 이룩한 주요 성과로 꼽힌다.

1) 분과활동

분과는 유사분야 전공자들 간의 학제적 교류를 지향하는 제1단계 장치로 호남사회연구회가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과활동이다. 1994. 12월 현재 지역사회분과, 사회사상분과, 역사분과, 문학분과, 철학분과 등 5개 분과가 가동중이며, 앞으로 농업분과와 환경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호남사회연구회 모든 회원

이 적어도 1개 분과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해마다 각 분과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발제 및 토론회를 갖는 형식으로 분과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① 지역사회분과

지역사회분과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연관시켜 지역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전념했으며, 특히 의료 및 복지 실태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더욱 최근에는 전북종합개발계획의 부문별 점검에 치중하고 있다.

② 사회사상분과

사회사상분과는 사회과학이론의 탐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쟁점들을 상호 연관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지부 임원들과의 긴밀한 연대 아래 사회체제 및 이데올로기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독서회와 토론회를 병행해 왔다. 특히 한국

사회성격논쟁, 독일과 중국의 근현대사, 자본주의의 현황과 전망,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등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③ 역사분과

역사분과는 전북지역이 중심 무대가 되었던 한국근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그 맥락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의 현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의 발의와 기념사업회 발족에 있어 중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학술 및 기획 부문에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사 정리, 사료 조사 및 보존, 혁명정신의 계승 방안 구체화 등등에 주력해 왔다.

④ 문학분과

문학분과는 전북지역의 활발한 문학풍토를 바탕으로 문학이론을 탐구함과 아울러 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보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활동 초기에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더불어 민족, 민중문학논쟁의 쟁점 및 전망을 다루었으며, 뒤이어 서구의 문

예이론을 주체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벌였다. 더욱 최근에는 주로 문학사회학 및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서구 여러 나라와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망라하는 리얼리즘문학의 성격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⑤ 철학분과

철학분과는 주로 사회철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서양의 철학사를 점검하고 사회구조와 인간본성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동안 동·서양의 철학사에 나타나는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간의 모순 양상을 구명하여 정의로운 사회상과 건전한 인간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 인성이 문제인가 제도인가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주도했다.

2) 월례발표회

월례발표회는 회원들간의 학제적 교류를 지향하는 제2단계 장치로 발제 및 토론회로 이루어진다. 발제는 분과별로 할당된 순서에 따라 소속 분과의 1단계 검증을 받아

월례발표회에 내놓게 되어 있다. 발제와 관련된 유사분야 연구자들을 사전에 토론자로 지명함으로써 내실 있는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외부 인사를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분과활동과 달리 월례발표회는 개방되어 있으며, 나아가서 공개토론회 형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금년 12월에 '세계화와 한국인의 소비문화'(발제: 이정덕 교수, 전북대 고고인류학과)라는 주제로 제52차 월례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지금까지의 월례발표 주제를 분야별로 대략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연구-농업 분야

- 지역연구의 의의와 과제
- 전북지역의 Open Space System 수립에 관한 연구
- 세계적 생태계 파괴와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
- 전북 도시지역의 저발전과 도시화 과정의 평가
- 전북지역 교사운동의 회고와 전망
- 전북지역의 구조분석과 지역운동의 과제
- 정보화사회와 지역사회 발전

- 전북의 사회복지: 실태와 과제
- 가부장제와 한국여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전북지역 의료서비스의 현실과 과제
- 지방의회 3년에 대한 평가
- 영·호남 지역간 계급 분화의 분석 시론
- 한국의 농업문제
- UR 농산물협상과 한국 농업의 위기
- ② 정치-사회-교육-법률 분야
- 지식인의 문화사적 제양상
- 80년대 학술운동과 역사인식의 문제
- 한국정치와 국가연구의 문제
- 한국사회성격 논의의 쟁점 및 전망
- 사회변혁론의 최근 동향
- 통일문제와 통일운동의 주요 논쟁
- 선거와 언론 그리고 지역감정
- 3·24 총선과 향후 정치정세
- 현대 한국의 국가 역할과 성격에 관한 연구
- TV와 언론자유 위기

- '일상'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학적 지위
- 세계화와 한국인의 소비문화
-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 '참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시론적 탐색
-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논의와 교육개혁의 전망
- 사회안전법의 규범적 실천적 고찰
- 미결구금과 국제 인권 기준
- ③ 역사-철학 분야
- 백제시대의 불교문화
- 북한의 민족사 인식
- 조선조 말기의 평등인식
-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전쟁
- 동학농민혁명과 1892년 전라도 삼례취회에 대한 검토
- 1930년대 소작쟁의와 소작경영:熊本 농장쟁의를 통하여
- 프랑스 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과의 비교를 위한 시론
- 실천적 철학의 전망
- 유가의 상제례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
- 마르크스에 있어 도덕과

이데올로기

④ 문학-예술 분야

- 전북의 민속 : 위도 띠뱃놀이
- 북한어의 성격에 대하여
- 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 채만식문학과 지역성의 문제
- 동학농민전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 전북지역 시문학의 변천을 위하여
- 문학언어와 이데올로기 형상화

3)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지역문제 위주로 선정된 대주제를 축으로 기조 발제, 소주제별 발제, 종합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4회에 걸쳐 다루어진 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 4차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호남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다루어진 대주제와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사회변동과 전북 사회의 위상
 - 한국근대사와 전북사회
 - 전북 경제의 구조와

문제점

- 전북 행정의 변화와 발전과제
- 사회개혁사상으로서의 미륵신앙
- ② 전북의 지역현실과 지역 사회운동
 - 현단계 한국사회의 지역 문제와 성격
 - 전북의 공업구조와 노조 운동
 - 전북의 농업문제와 농민 운동
 - 전북의 교육현실과 교사 운동
 - 전북의 문화현실과 문화 운동
- ③ 전북의 지역현실과 과제
 - 지방자치시대와 지역 학술운동
 - 전북지역의 공업구조와 중소기업의 문제
 - 전북지역농업의 구조 변화와 발전방향
 - 지방자치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교훈
- ④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성
 - 호남지역 집강소 개혁의 특성
 - 충청지역과 동학농민 혁명

- 경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특성
- 강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 경기, 황해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특성

4) 연합공개토론회

호남사회연구회의 공개토론회는 월례발표회의 규모를 키워 제3단계의 학문적 교류를 지향하는 선에서 출발하였다.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 지역의 대학생 및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던 중 지역사회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2년부터 우선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와 연대하여 3회에 걸쳐 연합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① 제1차 : 3·24 총선과 향후 정치정세
- ② 제2차 : 언론, 개혁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 ③ 제3차 :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 인성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이밖에 동·하계수련회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초청강연 또는 토론회를 개최

해 왔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쌀 개방 이후의 농촌문제'에 대한 초청강연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5) 문화행사

이 지역 중심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보급에 앞장선다는 목표 아래 문화행사를 개최해 왔다. 문화행사는 초청강연, 초청공연, 해설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행사의 비중을 낮춰 동·하계수련회의 막간 행사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있었던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① 초청강연

-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 : 민속예술로서의 판소리
- 북한미술의 이해와 감상
- 황병기의 음악세계
- 지식인 문화운동론
- 지역문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 80년대 미술운동
- 80년대 국악운동
- 신나는 미술시간 : 미술 교육의 현황과 과제

② 초청공연

- 「심청가」 중에서 (조영자)

- 「춘향가」 중에서 (조소녀)
- 우리노래 우리가락 (슬기둥)
- 창작 판소리 「오월 광주」 (임진택)
- 호남좌도풍물굿에 의한 사물놀이 (마당놀이패 '탈머리')
- 「똥바다」 (임진택)
- 「영축산 들배지기」 (극단 자갈치)
- 기타 여러 차례의 초청 공연 (전북지역 국악과 대학생들)

6)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연대활동

1988년부터 광주전남지역, 대구경북지역, 부산경남지역의 지역사회 연구단체들과 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지역별 연구발표 또는 자료보고 형식으로 다음 주제들을 다루었다.

- ① 지역문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 ② 지역사회운동과 학술운동
- ③ 9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지역운동의 전망

④ 지방자치와 지역운동
한편, 최근의 경상대학교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 사태에 즈음하여, 광주전남의 '전남사회연구회', 부산경남의 '지역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서 세 단체의 회원들은 당국의 각성과 언론의 균형있는 보도 태도를 촉구함과 아울러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7) 학술지 발간

호남사회연구회 회원들의 숙원이었던 종합학술지(『호남사회연구』) 창간호가 제6기(1992.9~1993.8)에 이르러 발간되었다. 연구회 활동을 구체적 성과물로 펴냄으로써 학문의 사회적 실천력과,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대중적 확산력을 높인다는 데 학술지 발간의 의의를 두고 있다. 학술지 편집의 기본 방향은 앞서 언급한 본회의 창립 취지와 일치한다. 창간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곧 발간될 제2집은 '전북종합개발계획'을 부문별로 점검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 ① 특별기획 : 동학농민혁명

의 현재적 의미

- 동학농민혁명과 1892년 전라도 삼례취회에 관한 검토
- 갑오민중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와 쟁점
-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의미와 실태
- ② 특집 : 전북의 지역현실과 과제
- 한국근대사와 전북지역 민중의 삶
- 지방자치시대의 전북지역 언론
- 14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감정
- 전북행정의 발전방향
-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전주시 개발계획에 관한 제언
- 서해안 개발 사업의 허와 실
- 전북의 사회복지: 실태와 과제
-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현실과 방향: 전북권 중심
- 기부장제와 한국여성: 호남 7마을 중심
- ③ 집중검점: 지역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 전북지역 민족민주운동의 경과와 평가

- 지역문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 군산지역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 전북지역의 교육현실과 과제
- 전북인의 의식조사
- 전북의 노동자계급의 상태 조사보고
- 1992년도 문화재 조사 및 문제점
- 1992년도 전북지역 노동운동 일지

5. 활동 평가

지난 7년에 걸친 호남사회연구회의 활동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주로 연구회 창립 취지에 걸부시켜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제성과 토론문화

기존 학문풍토를 대체로 관념주의, 일방성, 미분화 등등으로 수식할 수 있다면, 호남사회연구회는 기존 학계의 이같은 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호남사회연구회 회원들은 역사적, 지역적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

이론을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되도록 구체적인 사안들을 적시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

과학지향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리하게 제도화되어 버린 학문분야의 미분화 내지는 교립화 현상을 극복한 것도 호남사회연구회의 성과로 꼽힌다. 분과활동, 월례발표회, 공개토론회로 이어지는 제1, 2, 3단계의 학문적 교류 장치를 통해 회원 각자가 자신의 전공분야를 축으로 원심적, 구심적 연구 태도를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상당 정도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분과활동의 경우 2개 분과에 중복 참여하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호남사회연구회가 이룩한 더욱 팔목할 만한 성과는 이 지역의 교수사회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 또는 수용에 길들여져 있는 교육 현실과, 특히 이 지역 고유의 유교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출범 이후 몇 년에 걸쳐 호남사회연구회가 보여준 토론문화가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던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우선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 또는 유사 활동이 여기에 기여했다. 그리고 발제자와 사전에 지명된 유사분야 토론자들 간의 토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분과활동 및 월례발표회도 토론의 일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진보성과 민주화

사상과 학문의 자유 확보, 민주화운동 및 민주화과정의 감시 기능에 있어서도 호남사회연구회가 일정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남사회연구회는 한국 특유의 편향되고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더욱 다양한 학설과 관점을 수용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교수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신장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또 스스로 실천해 왔다.

언론, 법률, 의료, 교육, 농업 부문 등등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운동단체들과 수시로 연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서 실천적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민주화운동에 앞

장서고 민주화과정을 꾸준히 감시해 왔다는 점 또한 호남사회연구회의 성과에 속한다.

한편, 북한연구, 여성학 등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더불어 통일 전망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문제에도 진보적인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와 사업들을 통해 진보적 학술운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3) 지역성과 지역연구

호남사회연구회는 지역성을 가장 우선적인 취지로 표방하고 지역연구를 그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출범했다. 따라서 활동 평가도 이 부문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하겠거니와, 편의상 학문활동, 정책대안, 시민운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사회연구회가 이 지역의 교수사회, 넓게는 대학사회의 학문풍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 출범 당시에 보인 냉랭함 내지는 거부감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주위 교수

들의 관심이 커지고 그만큼 회원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학제성, 진보성, 지역성의 조화로운 확립이 기존 학제와 연구풍토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관련하여 주위 교수들이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한편, 준회원 제도를 통해 석·박사 과정의 예비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전북지역 언론들이 호남사회연구회의 동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역문제들에 대한 연구회의 집중 조명이 상당 정도 파급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연구회가 지향한 지역사회 현안 중심의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연구가 이 지역 관련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또 비판과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라는 연구회의 상대적 개방성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호남사회연구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방 그리고 WTO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화, 세계화와 대략 그 시기가 일치한다. 호남사회연구회는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지방화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일정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지역단체들과의 연대 및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의 폭을 점차 넓혀온 결과,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6. 한계 및 전망

지역사회 연구단체로서 호남사회연구회가 안고 있는 활동상의 한계점들도 적지 않다. 크게 보아 외부적, 내부적 그리고 재정상의 한계를 들 수 있겠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진보와 개혁의 의미가 희석되고 주체의식이 반감되는 기묘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호남사회연구회가 견지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변혁 의지가 문민정부의 기본 노선과 부분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연구회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파급시키는 데 있어 아직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연구회의 뿌리가 민주화운동이었고

창립회원들이 서명교수들이었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연구회 밖의 일부 교수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다. 이에 관련하여 호남사회연구회는 참여와 비판이라는 상대적 개방성을 통해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호남사회연구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도 많다. 우선 연구회 창립 취지인 학제성과 회원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진보성에 관련한 회원 개개인의 성향 또한 연구회의 결정과정과 사업수행에 있어 적잖은 걸림돌이다. 나아가서 지역성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전공분야 때문에 생기기 마련인 관심도와 참여도의 차이 또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회원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치우쳐 있어서 농업문제 및 환경문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점도 호남사회연구회가 극복해야 할 내부적 한계다. 이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문 지역단체들과의 더욱 폭넓은 연대를 통해 교수사회 특유의 간극을 메워나가게 될 것이다.

재정적 순수성이라는 강점은 별개로, 호남사회연구회가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연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 요인이다. 학술지 『호남사회연구』 창간호가 제6기(1992. 9~1993. 8)에 이르러서야 발간된 것도 순전히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나아가서 과다한 회비가 회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다. 다행히 그 동안의 연구회 활동을 지켜본 이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기금 출연에 나서고 있으며, 제8기 활동 단계에서 상당 수준의 자금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금 현재 호남사회연구회를 사단법인체로 재출발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중이다. ■

유제호/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리옹 II 대학 언어기호학연구소를 수료했다. 현재는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호남사회연구회 연구간사로 활동중이다. 저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시텍스트와 이데올로기 형상화” 외 다수를 발표했다.